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여! 식(識)이 탐욕을 떠나면 색(色)·수(受)·상(想)·행(行)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얽매임이 끊어지게 되어 다시는 성장하거나 뺏어나가지 못하게 된단다. 그리하여 식은 행동하지 않고, 그 뒤에는 머무르며, 그 뒤에는 만족할 줄 안단다. 이처럼 해탈하게 되면, 모든 세간에 대해서 전혀 취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게 되며, 열반을 자각하여 '나의 생은 다하였고 범행(梵行)은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게 된단다. ... (후략) ...

- ① 탐욕, 성냄, 어리석음[三毒]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
- ② 나와 세계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여덟 가지 바른 수행[八正道]을 통해 불변의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
- ④ 내세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몸과 입으로 많은 업(業)을 쌓아야 한다.
- ⑤ 열반의 결과인 무명(無明)에 도달하기 위해 바른 생각에 힘써야 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치적 의사 결정과 제도의 정당성은 단순 다수결 절차를 통해 확보될 수 없다. 그 정당성은 시민들이 상호 간의 대화와 논증을 통해 자신의 선호를 바꿀 수 있어야 확보된다.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개방적이고 폭넓은 참여와 참여자들의 반성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을: 선출된 의원들은 유권자를 수동적으로 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량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에 대한 경쟁일 뿐이며, 시민의 역할은 선거에서 대표를 택하는 일에 머무른다. 시민은 정치적 영역에서 무책임하고 충동에 빠지기가 쉽다.

- <보기>
- ㉠ 갑: 대화 참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 ㉡ 갑: 모든 정책 결정의 과정에 시민이 모두 직접 참여해야 한다.
  - ㉢ 을: 민주주의는 실제로 인민의 지배가 아니라 정치인의 지배이다.
  - ㉣ 갑, 을: 시민은 항상 합리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존재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것이요,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사르트르**

을: 인간 실존에는 심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가 있다. 종교적 실존에서 인간은 초월적 신과의 만남을 통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 **카뮈케르**

(나)

- <보기>
- ㉠ A: 보편적 진리는 실존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XX~~
  - ㉡ B: 주체적 결단을 통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 ~~XX~~
  - ㉢ C: 절망을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가? ~~XX~~
  - ㉣ C: 인간은 선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가? ~~XX~~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입이 맛을 좇고 눈이 색을 좇음은 본성(性)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명(命)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본성이라 하지 않는다. 부자 사이에 인(仁)이 있고 군신 사이에 의(義)가 있음은 모두 명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본성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그것을 명이라 하지 않는다.

을: 사람에게 스승[師]과 법도[法]가 있다면 큰 보배를 가진 것과 같고 그것이 없다면 큰 재앙과 같다.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본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이 있다면 노력을 쌓는 것[積]을 존중하게 된다. 스승과 법도는 노력을 쌓는 데서 얻는 것이 본성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맹자**

- ① 군자와 소인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가? ~~OO~~
- ② 인간은 인식 능력 및 실천 능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OO~~
- ③ 인간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인과 의의 덕성을 실현해야 하는가? ~~OO~~
- ④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OO~~
- ⑤ 소인은 지극히 크고 곧은 도덕적 기운[浩然之氣]을 길러야 하는가? ~~OO~~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5.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아리**  
갑: 인간의 행위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은 점점 상위의 목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른다. 이 목적은 최고선이다. 그렇다면 최고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이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아퀴나스**  
을: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원리에 의해,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행복을 향해 진진한다. 그런데 완전한 행복은 인간적 본성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다른 원리가 신에 의해 인간에게 추가되어야 하고, 이 원리를 신학적 덕이라 한다.

- ① 갑: 행복이란 자연적 경향성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 ② 갑: 덕은 건강과 명예처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 ③ 을: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된다.
- ④ 을: 인간은 스스로 성취한 덕에 의해 최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갑, 을: 덕은 지식과 일치하고 지식으로서의 덕은 행복과 일치한다.

③ - 완전한 행복: 신에 대한 경외 (기쁨과 감동)

6.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만물이 흥성하게 일어나지만 자량으로 여기지 않으며 공(功)을 이루고도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은 마음을 자유롭게 노니(無)로(遊),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인의(仁義)를 교제 수단 정도로 여깁니다. 성인은 꾀하지 않으며 지식은 어찌 필요하며, 잃음이 없으니 얻음이 어찌 필요하겠습니까!



- ① 갑: 사물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남과 다투지 말아야[不爭] 한다.
- ② 갑: 강(敬)의 실천을 통해 흐르는 물처럼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 ③ 을: 만물의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 ④ 을: 나라의 규모를 크게 하고 백성의 수를 넓게 하여야 한다.
- ⑤ 갑, 을: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예법(禮)을 제정해야 한다.

7.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진리는 아주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데카르트**  
을: 우리가 자연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네 가지 편견이 있다. 그것은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다. **베이컨**  
병: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

- ① 갑: 철학의 제1 원리는 방법적 회의의 출발점이다. **데카르트**
- ② 을: 유용한 지식보다는 지식 자체를 위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
- ③ 병: 사회가 아니라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④ 갑, 을: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 ⑤ 을, 병: 객관적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을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국가의 구성원들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정의로운 것은 실상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플라톤**  
을: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롤스(?)**

- ① 갑: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 ② 갑: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철학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어 있다. **플라톤**
- ③ 을: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 ④ 을: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한다.

9.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격물(格物)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제거하여 그 본체의 바름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의념(意)이 머무는 곳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서 그 바름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왕양명**  
을: 격물은 치지(致知)하는 방법이다. 한 사물에서 한 개의 이치[理]를 궁구하면 나의 지식도 한 개를 얻게 되고, 두 사물에서 두 개의 이치를 궁구하면 나의 지식도 두 개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할수록 나의 지식도 넓어진다. **주희**

- ① 갑: 모든 이치는 내 마음과 독립하여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 ② 갑: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 **이**
- ③ 을: 도덕적 앎과 실천은 서로 의존적 관계[相須]임을 자각해야 한다.
- ④ 을: 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갑**
- ⑤ 갑, 을: 격물이란 의념이 머무는 곳[事]을 바로잡는 것[正]이다.

10.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정(情)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 성에 대해서는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유독 정에 대해서는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성**  
을: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포함하고[兼] 있지 않은 것이지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이**

<보기>  
㉠ 발하는 것은 기(氣)이고 발하는 근거[所以]는 이(理)인가?  
㉡ 사단과 칠정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도(道) 감정인가?  
㉢ 사단과 칠정은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하는가?  
㉣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르는 것인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1.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인상(印象)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이성적으로'라는 말은 '자연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완전하게'라는 뜻이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당신에게 고유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성적 능력이다.

을: 삼각형의 본성으로부터 그것의 세 각의 합은 두 직각의 합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영원에서 그리고 영원으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이 필연과 동일한 필연으로, 신의 최고의 힘으로부터 무한하게 많은 양태(樣態)의 무한하게 많은 것들이 항상 따라 나올 것이다.

<보기>

- ㄱ. 갑: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나오는 만족일 뿐이다.
- ㄴ. 을: 자연은 인과적 필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이다.
- ㄷ. 갑, 을: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 ㄹ. 갑, 을: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정념의 속박을 극복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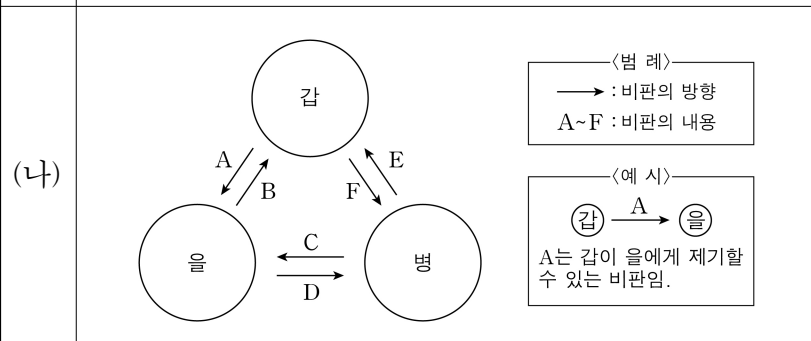
7-2 2021. 9A 모의평가 풀이 2!

12.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 규약에 합의하게 된다.

을: 자연 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병: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 우리 각자는 신체와 힘을 모두 일반 의지에 맡긴 후 다시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 ① A: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 ② B, D: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임을 간과한다.
- ③ C: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E: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됨을 간과한다.
- ⑤ F: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0: 자연 상태 (정리 X) (정의 X)

13.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왜 일심(一心)이라 부르는가?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은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일(一)이라 하며, 허공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이 스스로를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므로 심(心)이라 한다.

을: 이치(理)에 들어가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것은 선정(禪定)과 지혜(慧)가 아닌 것이 없다. 선정은 자성(自性)의 본체이며 지혜는 자성의 작용으로서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 ① 갑: 다양한 현상은 마음과 별개로 고정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 ② 갑: 모든 종파의 이론들은 하나의 근원에 의해 회통되어야 한다.
- ③ 을: 돈오(頓悟)는 습기(習氣)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 ④ 을: 정혜를 함께 닦는 것을 점수(漸修)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
- ⑤ 갑, 을: 무아(無我)를 철저히 깨달아야 중생의 구제가 가능하다.

1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유는 시민적 자유 내지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국가는 선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권력이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을: 자유는 자의적 지배 권력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법치 국가가 되어야 하며, 이 국가와 동료 시민에 대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 진정한 애국이다.

<보기>

- ㉠ 갑: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 을: 시민의 정치 참여는 자유를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 ㉢ 을: 자신이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 애국이다.
- ㉣ 갑, 을: 자유를 실현하려면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C. 2022 FLOWER-BLOSSOM 6A 모의평가 풀이

1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서양 물건은 기괴한 기술과 교묘함으로 마음을 타락시키므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인(洋人)으로 인해 백성들이 곤궁해지고 재물이 고갈되어 나라꼴이 아니고, 예의를 지키던 자들이 재물에만 몰려 금수로 타락해 간다.

을: 마음이란 내게 있는 본연의 한울(天)이니 본래 한마음이다. 마음은 선천과 후천의 마음이 있고, 기운 또한 선천과 후천의 기운이 있다. 천지의 마음은 신령하고, 천지의 기운은 천지에 가득 차 있으며 우주에 뻗어 있다.

- ① 갑: 성리학각 철서와 서양의 기술[西器]을 모두 배척해야 한다.
- ② 갑: 서양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부족한 재화를 충족해야 한다.
- ③ 을: 새 세상이 현세에 도래할 것[後天開闢]이니 준비해야 한다.
- ④ 을: 무궁한 한울의 마음과 유한한 사람의 마음은 본래 다르다.
- ⑤ 갑, 을: 유교의 인륜을 바탕으로 불교와 도교를 통합해야 한다.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이성 / 직 선택

16.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직역용

○ 사람이 태아로 있을 때 하늘이 그에게 영명(靈明)하며 무형(無形)한 체(體)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니 이것을 성(性)이라 말한다.  
○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덕을 좋아하는 감정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다. 이 성은 비록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근본은 하늘의 명령(天命)이다.

<보기>

- ㄱ. 인간은 사덕(四德)을 실천함으로써 사당을 이룰 수 있다.
- ㄴ. 인간은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의 본성도 지니고 있다.
- ㄷ.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통해 자유 의지(自主之權)를 형성한다.
- ㄹ. 인간의 선행은 자신의 공적이 되고, 악행은 자신의 죄가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화란 직접적 평화, 구조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 평화가 모두 합쳐진 상태를 뜻합니다. 직접적 평화는 한 개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이고, 구조적 평화는 부정의한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평화는 직접적이거나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화가 부재한 상태를 말합니다.

활동

- ① 직접적 폭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다.
- ②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③ 평화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④ 테러나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이다.
- ⑤ 직접적 · 구조적 · 문화적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 이에 반해 자의(恣意)의 모든 타율은 전혀 책무를 정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무 및 의지의 도덕성 원리에 맞서 있다.  
을: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 전체 또는 대다수가 도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중 어떤 하나를 뚜렷이 선호한다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쾌락일 것이다.

<보기>

- ㉠ 갑: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 ㉡ 을: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다.
- ㉢ 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쾌락을 선호한다.
- ㉣ 갑, 을: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안명 / 공리 / 원리

1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성

어떤 살인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당신이 악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보라. 이때 당신은 어떤 정념, 동기, 의욕, 생각만을 발견할 뿐, 다른 사실은 없다. 당신이 그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 그 악덕은 당신을 피해 달아난다. 당신이 고찰의 방향을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에 대한 부인(否認)의 감정을 발견할 때까지는 당신은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 ① 덕은 모든 관찰자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 ② 덕은 직접 경험될 수 있고 이성으로도 발견될 수 있다.
- ③ 덕에 대한 식별은 이성에, 덕의 실천은 감정에 의존한다.
- ④ 덕은 성품에 관한 특성이 아니라 사물에 내재하는 속성이다.
- ⑤ 덕은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악덕과 구별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부는 경제에 대한 개입을 철회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꽃 피울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체질이 개선되어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  
을: 정부는 조세 체계와 이자율의 결정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불황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는 완전 고용을 위해 투자를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

<보기>

- ㉠ 갑: 정부는 자유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 ㉡ 을: 정부는 시장의 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 ㉢ 을: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려면 재정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 ㉣ 갑, 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는 인정되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